

■ 연합회

편집회의 개최



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7월 22일 이상호 회장 및 박노경(전 경향신문·조선일보논설위원)고문(좌), 이용운(월간 첨단 기술 발행인) 초대회장(아래), 편집디자인 대행업체 강석인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도 회보 「월간 환경기술인」에 대한 편집회의를 가졌다. 전체 내용의 편집방향과, 기획·특집기사, 시기적절한 기사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연합회원들의

소식지로서의 기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박노경 고문은 "회보는 무엇보다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단결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기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운 초대회장은 "회원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기적절한 기사의 안배로 읽을 내용이 풍부한 잡지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연합회는 정기적으로 관계자들과의 편집회의를 통한 의견을 회보에 최대한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 연합회장동정

「수질유해물질의 통합독성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자문회의 참석



이상호 회장은 지난 7월 26일 환경부가 발주하고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 연구소가 주관한 「수질유해물질의 통합독성 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에 대해 자문위원으로 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 연구는 국내 산업폐수 및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학적 평가를 위

하여, 국내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폐수관리기준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또한 국외 폐수에서의 유해물질 관리제도를 파악, 국내에서의 적용타당성을 검토하고, 폐수에 대한 유해물질시험법(안) 제시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이날 이 회장은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독성과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 대전충남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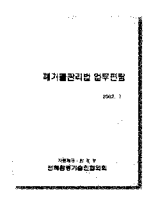
임원 하계 수련회 개최



대전충남협의회(회장 김금중)는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간 계룡산국립공원에서 임원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협의회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에는 협의회 활성화 방안 및 환경기술지원단의 구성과 활동,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토의했다. 다음날 17일에는 계룡산 동학사를 오르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 전북협의회

「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발행



전북협의회(회장 박전수)는 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 책자를 발행해 회원사에 무료로 배포하여 폐기물관리업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지난 7월에 환경부에서 단속기관에 배포한 폐기물관리법 업무지침서의 자료를 제공받아 편집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의 용어해석, 대법원 판례, 세부 업무지침, 각종고시, 훈령, 예규 및 지도점검 규정 등이 380여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있다. 박전수 회장은 여유분을 타지역 협의회 관계자에게 무료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간의 여분도 있습니다.



環境人會館建立

기금모금운동전개

본회는 환경인 상호의 친목도모와 보다 미래 지향적인 환경보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환경인의 오랜 숙원인 「환경인 회관」을 건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금을 모금합니다.

환경사에 기리 빛날 본 사업에 많은 환경인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 ♣ 기 모금액 : ₩114,340,525(2002년 2월 현재)
- ♣ 모금액 : 1억원(대지 구입분)
- ♣ 모금기간 : 2001년 6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 ♣ 회관의 규모 : 연건평 1,200평(지하1층 지상5층)
- ♣ 회관의 이용 :
 - 대강당1 / 소강당2 / 회의실4 · 도서실1 (100석규모)
 - 환경단체 독립사무실9 · 자료실1 / 전시실1 / 개인연구실6
 - 실험실5 (대기·수질·토질·생태·기타)
- ※ 회관의 건립기금 기탁 환경인이 회관의 운영주가 됩니다.
- ♣ 기금기탁방법 : 1구좌 (1만원)이상
 - 본회 사무국 직접 접수
 - 금융기관 구좌 이용

환경인 회관건립을 위한 은행 계좌번호

한빛은행	818-013381-13-101	외환은행	129-22-02347-4
기업은행	203-031469-04-024	국민은행	837-01-0075-444
우체국	014084-01-003102	신한은행	273-05-011466
▶ 6개 은행구좌 예금주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환경인 회관 건립 기금을 기탁해 주시는 환경인에게는 기금증서를 드리며, 존함을 동판에 기록 건립될 회관에 영구 보존하여 그 뜻을 기립니다.

※ 기금입금후 아래 문의처로 개인 및 단체소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인회관건립추진위원회

서울 구로구 구로6동 98-11 삼원 B/D 6F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TEL : (02) 852 - 2291(代)

FAX : (02) 852 - 2294

HomePage : <http://www.keef.or.kr>

E-mail : keef@keef.or.kr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현장설명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鄭長燮)은 지난 7월 18일 삼성종합화학(주) 서산공장에서 기업 에너지관련 부서장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우수 산업체의 절약기술 발표와 현장견학을 추진하는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가 개최된 삼성종합화학(주)은 100여건의 에너지절감 포인트를 발굴하여 SM반응부 열교환망 개조, 부생가스 재이용, 설비운전개선 등으로 연간 1천억원의 에너지절약 성과를 거두어 2001년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최초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환경기술 육성·수급 워크숍 개최

환경기술인력 수급 및 육성을 위한 워크숍이 지난 7월 16일 10시부터 서울 팜그린호텔(압구정역) 1층에서 개최됐다.

환경관리공단과 대한환경공학회가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기술인력수급 및 육성에 관한 연구” 용역사업 중간결과를 토대로 환경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최종연구에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행사에는 환경기술인력 육성 및 수요창출과 관련한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소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환경기술인력 육성 및 수요창출분과로 나눠 논의를 거친 후 논의결과 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인력육성 분과에서는 교과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현장중심 교육방안 등 체계적인 인력육성 방안, 인력육성 등을 위한 산·학·연 역할 등이, 수요창출 분과서는 환경산업 발전 전망, 환경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수요창출 방안, 인력수급 전망 및 문제점, 기술인력의 체계적 관리방안 등이 다루어졌다.

현재 국내환경기술인력의 현황은 대다수의 인력이 환경오염측정, 평가, 유지 등을 위한 인력으로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사후처리를 위한 공정개선, 환경기술개발 인력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환경재단 사무실 개소

환경재단(공동대표 이세중·김영수) 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피어선 빌딩 708호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환경기금 조성에 나섰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김영수(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지하(시인), 이세중(전 대한변협회장), 장명수(한국일보 사장), 정몽준(국회의원),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문국현(유한킴벌리 대표), 유인촌(극단 유씨어터 대표)씨 등 17명이 환경재단의 이사진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환경재단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환경단체 및 연구기관 지원기금(환경친화적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제도) ▲환경 프로젝트 및 환경행사 지원사업 ▲국제환경교류 지원기금(제3세계 환경단체 지원) ▲모범 환경인과 환경단체 포상 ▲환경단체공동시설 건립과 환경운동가 재교육 등에 사용된다.

포스코 녹색구매 가이드라인 시행

포스코는 환경친화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녹색구매 활동은 유해물질과 화학물질 사용을 줄인 자재, 자원·에너지 절약형 자재,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 등 환경친화형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포스코 장택상 자재구매 기획팀장은 “우선 유해품목군을 물리적 건강 장애 환경유해물질, 화학물질, 유독물질 등 3가지로 분류해 녹색구매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4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